

# 나주 막걸리·프랑스 샴페인...172년전의 만남 재현

### 21일 '조선-프랑스 첫 만남' 한불 포럼 ...윤병태 시장 "한·불 우호·교류 초석 되길"

막걸리와 샴페인의 첫 만남으로 비유되는 172년 전 조선시대 나주와 프랑스(한·불) 관리의 우호적인 만남을 기념하는 학술 포럼이 열린다.

나주시는 오는 21일 오후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조선과 프랑스의 외교적 첫 만남의 계기가 된 나르발호(號)의 비금도 표류 사건을 재조명하는 한·불 학술 포럼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나주와 프랑스의 첫 만남'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서는 '조불(朝佛) 우호 통상 조약'(1886년)보다 35년이나 앞선 1851년 이미 두 나라의 만남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한다.

프랑스 북서부 르 아브르항에서 출항한 프랑스 고래잡이배 르 나르발(Le Narval)호는 1851년 4월 신안 비금도 해역에서 난파됐다.

당시 중국 상하이 주재 프랑스 영사 몽티니(Charles de Montigny)가 구조 원정대를 이끌고 비금도에 도착했는데 격정과 달리 선원들이 섬

주민들의 보호 아래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안심했다.

몽티니 영사는 조선 정부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선원 송환 하루 전인 5월 2일 당시 나주 목사 겸 남평 현감인 이정현과 한국 술(막걸리로 추정)과 샴페인으로 만찬을 했다.

이때 몽티니는 술이 담긴 옹기 술병을 받았는데 이는 한국과 프랑스 첫 교류의 산물이다.

172년이 흐른 올해 5월 프랑스 파리 세브르 국립 도자기박물관에서 양국의 첫 만남을 기념하는 행사가 주프랑스 한국 대사관 주최로 열리기도 했다.

몽티니 영사가 나주 목사에게 받은 옹기 호리병이 전시됐으며, 프랑스 샴페인협회 사무총장·한국 막걸리 협회 고문·비금도 사건을 연구한 에마누엘 루 파리 7대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에마누엘 루 교수가 '한불 첫 만남의 역사적 고찰'의 주제 발표를 하고 오영교 한불

통신 대표·김희태 전 전남도 문화재전문위원이 양국 사료 연구성과 활용방안 등을 다룬다.

또 한·불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도 이어진다.

나주시는 관내 보존돼있는 이정현 나주 목사의 선정비를 소개하고 172년 전 첫 만찬에 사용됐던 옹기 주병을 재현해 전시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한·불 양국 외교사를 새롭게 바꿀 172년 전 역사적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고자 하는 나주의 노력이 한·불 양국의 우호와 교류의 초석이 되길 소망한다"며 "내년에는 프랑스에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프랑스 세브르 국립도자기박물관의 옹기주병(왼쪽)과 이정현 나주목사 선정비.



## 장흥군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준비 순조

### '치유와 힐링, 통합의학과 함께' 9월 8~14일 의료산업관 등 마련

장흥군이 다음 달 열리는 12번째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준비를 순조롭게 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장흥군은 최근 '2023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실·과·소, 읍·면 운영 회의를 열어 개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읍·면 팀장 등 50여 명의 참석자는 축제 대행사의 추진계획과 세부 실행계획을 보고 받고, 부서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2023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는 오는 9월8~14일 일주일간 안양면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에서 열린다.

'치유와 힐링, 통합의학과 함께'를 주제로 양방과 한방, 대체 의학을 아우르는 통합 의학을 선보일 계획이다.

행사장에는 항노화뷰티관, 건강증진관, 의료산업관, 통합의학관, 보완·대체의학관, 건강 음식관, 특산물판매장 등 7개 공간이 마련된다.

다음 달 8일 개막식에는 TV 경연 예능 '미스터



장흥군이 최근 '2023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9월8~14일) 실·과·소 운영 회의를 열고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트롯' 출신 이찬원과 박지현 등의 축하 무대가 펼쳐진다.

9일부터는 김중권(건강강좌), 유희승(건강강좌), 최태성(역사강좌), 오한진(양방강좌), 김오근(한방강좌) 등 전문가 강좌가 열린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박람회가 되길 바란다"며 "통합의학의 메가·글로벌 웰니스 장흥 구현을 위해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 나주 혁신도시 의료기관 로컬푸드 공급 확대 나주농업진흥재단·빛가람종합병원 업무 협약

나주시가 빛가람혁신도시에 있는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고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나주농업진흥재단과 빛가람종합병원은 최근 '로컬푸드 공급 확대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

이번 협약을 통해 나주시는 빛가람종합병원 구 내식당에 나주 로컬푸드 식재료를 공급하게 됐다. 나주농업진흥재단은 임직원 건강검진 시행기관으로 이 병원을 지정했다.

두 기관은 지역 농가 판로를 확보하고, 병원 환자·직원들을 위한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나주 빛가람종합병원은 지난 2020년 4월 개원했으며, 신경·정형·일반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진료과목 9개와 220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인공신장센터와 공공 산후조리원을 갖춘 중형종합병원이다.

이양범 재단 부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 선



순환 경제에 관한 관심과 공감대 확산에 이바지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로컬푸드 농가와 업체,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성군이 오는 25일까지 하반기 귀농학교 농업 기초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상반기 귀농학교 교육 모습. <장성군 제공>

## 장성군, 귀농학교 기초과정 수강생 모집

장성군이 오는 25일까지 하반기 귀농학교 농업 기초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은 다음 달 5일 시작해 주 2회, 총 10회 열린다. 교육 1회당 4시간 수업이 진행된다.

장성군 농업기술센터의 귀농학교 농업 기초과정은 귀농에 필요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이다.

귀농기초 소양교육과 작목별 재배 체험, 선도 농가 방문 등으로 구성됐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농업기술센터(061-390-7180), 귀농귀촌지원센터 누리집이나 귀농

귀촌지원센터 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 신청은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팩스를 이용하면 된다.

장성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 기초과정 외에도 성공 귀농품목 전수 교육,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귀농인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선배 귀농인과 만남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농업 현장에 필요한 정보를 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화순군, 18일까지 청년 푸드트럭 운영자 모집

### 1인당 1600만원 지원

화순군이 주요 관광 명소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할 청년을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

화순군 청년 푸드트럭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되면 1인당 16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은 푸드트럭을 개조하거나 시설, 장비 구매 비용으로 쓰인다.

푸드트럭은 화순군 도곡면 고인돌 선사체험장 주차장과 춘양면 고인돌 유적지 주차장 등 2곳에

서 운영할 수 있다.

화순군은 지원자가 복수로 나오면 장소별로 공개 추첨을 통해 최종 사업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화순에 사는 18~49세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8일까지 공모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을 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 찾아가는 인문학 교육

### 담양군, 25일까지 선착순 모집

담양군이 오는 25일까지 '찾아가는 인문학 교육' 참여자 4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강의는 다음 달 5일부터 10월12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대전면, 대덕면, 무정면, 장평면 등지에서 진행된다. 담양군은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라는 지역적 특색에 맞게 강의 주제를 '영화 인문학 산책' <사진>으로 정했다.

현장이 생각변화연구소장이 강단에 올라 영화가 담고 있는 인문학적 시각을 전달 예정이다.

현 소장은 KTV국민방송 '영화로 읽는 고전문학', 한국직업방송 '당신의 삶을 바꾸는 영화 인문학' 방송에 출연했다. 국토교통부, 국립세종도서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영화와 인문학에 관련된 강연을 진행해왔다.

첫 강의는 오는 9월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담빛청소년문화의집에서 열린다. 이날은 영화 '어바웃타임'을 보고 강연과 토론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담양군 누리집 공지사항란과 담양군 행정과(061-380-318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해당 읍·면 사무소에 직접 신청하거나 전자우편(ksm83@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앞으로 인문학교육 콘텐츠 개발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교육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함평읍 주택가·상가 일대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 <함평군 제공>

## 함평군, 읍내 불법 주·정차 24시간 단속

### 10월 2일부터...유예시간 20분으로 단속

함평군이 오는 10월2일부터 함평읍 주요 구간의 불법 주·정차 폐쇄회로(CC) TV 단속 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한다.

함평군은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했던 CCTV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함평읍 주요 구간에서 24시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정차 유예 시간도 오는 10월2일부터 기존 30분에서 20분으로 단속한다.

최근 자가용 증가로 교통 체증이 심해지고 단속

유예시간인 오후 6시 이후 도로 양면 주차 문제가 심화하면서 함평군이 단속 강화에 나섰다.

단 중앙로 격주제 주차와 토요일 및 공휴일 단속 유예는 기존처럼 운영한다.

정병호 함평군 교통행정팀장은 "CCTV 단속 강화 등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께서도 쾌적하고 안전한 함평읍 소재지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